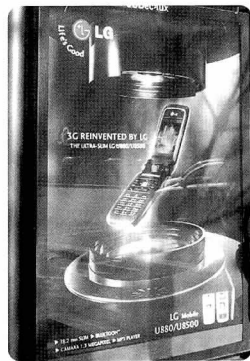


3GSM World Congress 2006

‘Beyond 3G’ 선점위한 기술경쟁 ‘불꽃’

지난 2월 13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3GSM 월드 콩그레스 2006 (3GSM World Congress 2006)’이 열렸다. 3GSM 세계회의는 GSM 통신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발족한 국제협력기구 GSMA(GSM Association)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고 권위, 최대 규모의 GSM 국제회의겸 전시회이다. 이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모바일 업체 제품을 모았다.

글 | 모바일타임스 특별취재반



올해 행사에는 삼성전자를 비롯 노키아, 모토로라 등 세계 96개 글로벌 통신 업체가 참가(전년대비 40% 증가), HSDPA·모바일TV 등 차세대 서비스를 준비하는 자사 기술과 제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였다.

올해 3GSM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현재 본격적인 상용서비스가 임박한

HSDPA(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출제제품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인프라 위주였지만, 올해 상용 단말기를 포함, 주로 단말기 위주 전시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HSDPA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60평 규모의 별도 전시관을 설치, HSDPA 와이브로 등 차세대 통신 기술 및 위성·지상파 DMB 폰, 초슬림폰, 3G(세대)휴대폰 등 최첨단 휴대폰을 전시했다.

먼저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CES 2006’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 HSDPA폰을 선보이고 기존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3.6Mbps의 HSDPA 기술 시연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이번에 세계 최초로 ‘초슬림 HSDPA폰(SGH-Z560, 사진)’을 선보였다.

초슬림 HSDPA폰은 16mm 두께의 슬림한 디자인에 200만 화소 카메라, 블루투스, MP3나 AAC 대응의 음악 기능 등 최첨단 기능을 모두 내장한 제품으로 올해 2분기에 유럽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 행사에서 위성·지상파DMB, DVB-H, 미디어플로 등 전세계 모든 방식의 모바일 TV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TV 제품들을 대거 출품했다.

LG전자

LG전자는 이번 3GSM에서 각종 모바일 TV 및 HSDPA 등 고속 데이터통신 등을 선보임과 동시에, 3G WCDMA시장 및 유통시장 공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유럽 휴대폰 시장에서의 2006년 목표 및 사업전략을 공개했다.

LG전자는 지난 2001년 GSM 시장에 뛰어들어 이래 메이저 사

업자들과의 밀착 마케팅 및 3G UMTS(WCDMA) 시장 선점 효과 등을 통해 유럽 휴대폰 시장에서 매년 2배 이상의 비약적인 매출 증가를 거듭, 지난해 유럽시장에 900만대 이상의 휴대폰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전자는 올 한해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200만대 가량을 이 지역에 공급, 글로벌 휴대폰 시장뿐만 아닌 '유럽 내 메이저 플레이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팬택계열

팬택계열은 3세대 UMTS폰, 지상파 DMB폰 등 총 30종 50여 모델의 첨단 휴대폰을 전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2006년 유럽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팬택계열은 올해 안에 출시 예정인 3G UMTS폰 팬택 'PU-5000'을 최초로 공개한다.

'PU-5000'은 그림감이 우수한 반자동 슬라이드 스타일에 듀얼 카메라·비디오 텔레폰·MP3P를 모두 갖춘 멀티미디어 UMTS폰이다.

한편 메가픽셀 카메라, 화상통화, 블루투스를 모두 지원하는 UMTS폰 'GU-1100'도 함께 전시한 팬택은 올해 5~6종의 UMTS폰을 출시, 3G 휴대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3GSM' 기간 중 오디오 코덱 분야의 선두 업체인 CT(Coding Technologies)사와 이동전화의 컬러링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오디오 코덱 기술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오디오 코덱 기술이란 음악파일을 모바일 기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압축한 뒤,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술로 고품질 컬러링, 벨소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다.

SK텔레콤은 이번 계약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음악 서비스용 오디오 코덱의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들에게 보다 원음에 가까운 컬러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VK·VMTS

브레이크(VK)의 프랑스 자회사인 VMTS는 GSM 휴대폰 베이스밴드 칩 및 프로토콜/스택 등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 VMTS는 현재 양산체제를 구축해 판매중인 GSM/GPRS칩 'V250G'와 2.75G EDGE칩/3G칩 그리고 3.5G HSDPA 등 차세대 핵심 기술과 이를 장착한 VK 휴대폰 등을 선보여 주목 받았다.

컴투스

컴투스는 자사의 모바일 3D 네트워크 대전 게임인 '2006홈런왕 3D'를 시연했다.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은 3GSM에 참가한 SK텔레콤 부스에서 진행되며, GXG 3D 게임들과 함께 모바일 3D 네트워크 대전 게임으로 행사기간 중 전시 소개됐다.

SK텔레콤 부스에서는 이외에도 GXG용 3D 게임 등 최신기술의 모바일 게임과, DMB 서비스, 모바일 싸이월드 등을 선보였다.

인트로모바일

모바일 컨버전스 솔루션 전문기업 인트로모바일은 DCC(Dynamic Communication Convergence) 플랫폼 '인트로패드(IntroPADTM)'를 출품해 전세계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 제조사들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인트로모바일의 '인트로패드(IntroPAD)' 솔루션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하고 상이한 포맷의 온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들과 방송 등의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재구성해 모바일로 제공하는 IP 기반의 유무선 연동 모바일 컨버전스 서비스 플랫폼. 